

함께 실천하는 환경보호

글_ 박진욱 대학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,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어.

그림_ 소경섭 삼촌



얼마 전 장바구니 챙기는 것을 깜빡 잊고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.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았지. 비닐은 잘 썩지도 않고 함부로 버려지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... 마음이 편치 않았어. 간식을 사러 들른 다른 가게에서는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더

라. 종이는 만들 때, 비닐보다 물과 화학 물질을 더 많이 쓰고 폐기물과 온실가스도 되게 많이 배출하거든.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졌지. 이모가 쓰는 장바구니는 예전에 물건을 사고 받은 건데, 비닐로 만들었지만 튼튼해서 다시 쓸 수 있어. 면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새로 살까도 생각했지만, 천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·에너지·비료·농약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, 그냥 있던 것을 쓰기로 했어.

그런데 가끔은 “나 혼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, 물이랑 전기를 아껴 쓴다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? 내 인생만 피곤하지!”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. 물론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은 중요하지.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. 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,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북극곰이 사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.

환경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비슷해.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직·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.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, 마시는 물, 끼니마다 먹는 음식,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제품, 학교와 놀이터의 환경 등 말하자면 끝이 없지. 만약 학교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다면, 그걸 없애는 동안에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어.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. 평소에 관리를 잘했다면,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과 걱정 그리고 운동장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.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야.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마스크를 쓰는 정도일 거야. 결국, 화력발전소·배기가스·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정부가 방법을 만들고 노력해야지.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니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기 전에, 먼저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?

환경과 건강에 관한 문제 중에는 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피할 수 있거나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.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해결책이 훨씬 효과적인 것도 있어. 바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, 오랫동안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. 나는 동무들이 이것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견하는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일들 말이야.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? 또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? 지금부터 필요한 걸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, 동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두의 건강도 지키고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로 믿어. 